

지금 당장

양희석 사진작가



사진의 주인공은 얼굴에 ‘지금 당장’이라는 구호를 쓰고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.
이 시끄럽고, 복잡하고, 부조리한 세상에 ‘지금 당장’ 구호 뒤에 붙을 말을 맡은 무엇일까?
언뜻 생각해 봐도 한두 개가 아니다.

사람마다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고,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다를 것이다.
곰곰이 생각해본다.

만약에 나라면 ‘지금 당장’ 구호 뒤에 무엇을 쓸 것인가?
당신에게도 권해보고 싶다. 당신은 ‘지금 당장’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이다.

<사진은 지난 9월 24일 진행된 기후정의 행진에서 찍은 것이다. 이 주인공이 피켓에 무엇을 썼는지는 상상에 맡긴다>